

2024년 1월 감비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선교서신

카톡: Gambiawam2684 /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010-04-06386-690 (GMS 한병희) / 미국: Wellsfargo Bank 1079234373177(Mr. Byung Hee Han)

주님을 사랑하시며 감비아를 사랑하시는 동역자님들과 교회에 문안드립니다. 금년에도 모든 동역자님의 생업과 주를 섬기시는 모든 일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의료사역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열린문교회의 단기의료 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일로 수년 동안 단기 사역 팀들이 올 수가 없었는데 금번에 열린문 교회에서 오셔서 감비아를 섬겨 주셨습니다. 내과, 소아과,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21분의 헌신자들이 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팀은 현재 저희가 사역하는 파칼린딩 마을과 퀴넬라 마을에서 950여명의 환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병원의 일들을 뒤로 두고, 그리고 귀한 휴가의 기간을 주님께 드려 헌신한 분들이었습니다. 치료받은 이들은 흔치 않은 섬김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구제사역 마을 사람들과 살면서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공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오래되어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에서 대가족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으니 어떻게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렵게 살아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직업이 있는 이웃이라 할 지라도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만만치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번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성탄절을 기하여 59가정의 어려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50kg의 쌀 한 가마니 씩을 선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하여 선물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이들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참다운 평안과 기쁨 얻기를 소망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의 공사는 외부의 소소한 일들만 남았습니다. 내부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역을 해야하는 단기 팀의 사역은 숙소가 없이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 숙소에서 미국의 열린문교회 21명의 의료팀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온 10명의 예수 전도단 팀원들이 현재 머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잠시 숙소가 필요하신 선교사님들의 거처로서 활용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진 숙소가 이곳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안식처로 잘 활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숙소를 위해 정성을 모아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도사역 마을들을 방문하여 그리고 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모슬렘 종교인들의 강한 반대를 받는 일들도 있으나 복음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망을 갖고 전합니다. 일전에는 예수 영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 추장님은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청년들이 몰려와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러운 소리로 웃고 떠들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일부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소수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추장이 나와서 방해하는 청년들을 진정시키므로 소란스러움이 수그러들었으나 그 때는 영화가 거의 끝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지 않은 어린이들과 몇몇 성인들이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은가니 형제의 교회개척 은가니 형제는 선교부에서 예수를 믿고 성장하여 퀴넬라 지부의 사역을 하였던 형제입니다. 사역하며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국립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아울러 퀴넬라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는 형제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박래수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 부인의 고향 마을인 은뎀반 마을로 들어가 살

집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가댁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우스 킨테 형제 카우스 형제는 만딩고 종족으로 자녀를 가진 가장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딩고 종족은 복음에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종족처럼 완고한 종족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제가 전해 주는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고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오셨음을 확신하고 계속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부인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당분간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형제의 믿음이 자라 공적 고백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의 박해가 있다해도 굳굳하게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실리아 멘디 씨실리아는 저희가 공동체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양육하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세 주 전에 씨실리아가 방과 후에 선교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크게 찰과상을 입고 오른 쪽 다리가 부러졌고 의식을 잃게 되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식이 돌아왔고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시골 병원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 급히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부러진 다리만 튼튼하게 되면 저희 선교부로 돌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사고를 당하여 안타깝지만 내가 이만 한 것이 예수님의 돌봄이었다.” 라고 하자 씨실리아가 “예, 정말 그래요!” 라며 대답하던 아이가 귀여웠습니다.

우물공사 감비아는 다른 이웃나라에 비하여 물이 깨끗하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깊이 않은 곳에서 나는 우물물 마시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깊은 암반 밑에서 부터 나는 깨끗한 물을(보오홀) 필요로 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미국의 벤엘교회를 섬기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창남, 정송석 두 분 장로님의 후원으로 보오홀을 완성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장로님께서 이 전에 월링가라 마을사람들의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나 마을 사람들의 무성의와 공사 업자의 불성실함으로 완성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송석 장로님의 허락으로 월링가라 마을 대신에 파칼린딩 마을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보오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조창남 장로님께서도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공급되어져 마을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큰 도움을 주신 두 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감비아 장로교 교단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2. 개종한 카우스 킨테 형제의 신앙을 위하여
3. 교통사고를 당한 씨실리아의 다리 건강을 위하여
4. 교회를 개척하고 교사와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은가니 전도사의 헌신을 위하여
5. 전도와 구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맡기신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 드림